



Vol. 11

김수정

-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산업을 보자
- 1) 클린에너지
- 2) 전기차 & 배터리

Contents

Summary	2
다른 거 말고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산업을 보자	3
1)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 태양광	4
2)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 풍력	8
3) 중국 2 차전지 산업	11
4) 중국 전기차 산업	12

Summary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4 가지 산업

지난 월보를 통해 하반기에는 중국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할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중국 본토 증시로 향하는 외국인의 자금 매수 강도는 높아지고 환율 역시 잘 버텨주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며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에서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에 따라 주가의 향방도 산업 단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발표된 양회 내용, 경기 부양책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봐야할 중국 내 산업들을 꼽아봤다.

중국은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지방특별채를 통해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목할 산업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1) 태양광

중국 내 태양광 설치량, 유럽向 수출 호조, 지방특별채를 통한 인프라 확충 계획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산업

2) 풍력

해상풍력 분야에서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

3) 2차전지

2021년 5월 대비 일년 동안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은 56.7%까지 상승하며 엄청난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늘어나면 함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

4) 전기차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소비 진작 정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에너지차인데,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함께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경우 지방별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New ETF Insight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산업을 보자

중국의 모든 산업 말고 선별적으로 봐야 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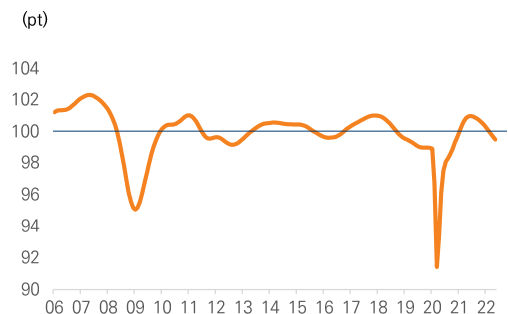
지난 월보를 통해 하반기에는 중국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할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중국 본토 증시로 향하는 외국인의 자금 매수 강도는 높아지고 환율 역시 잘 버텨주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며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에서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에 따라 주가의 향방도 산업 단위로 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현상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발표된 양회 내용, 경기 부양책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봐야할 중국 내 산업들을 꼽아봤다.

중국은 현재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지방특별채를 통해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목할 산업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 1) 태양광
- 2) 풍력
- 3) 2차전지
- 4) 전기차

1)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 태양광

중국은 정부에 의해 많은 것이 정해진다. 지금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모든 산업에 해당 되는 내용은 아니다. 중국 경제 여건 상 일부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다뤄볼 산업은 중국의 클린 에너지 산업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의 무기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중국 역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중국 국무원은 2022년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을 가속해 효과적인 투자확대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이어진 3월 중국 양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과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함께 명시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 탄소화 전환,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공급 패키지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 시켜줬다.

중국의 지방특별채 발행

[울렛차이나] 中, 경기둔화 대응 지방특별채 224조 인
프라사업에 즉각 투자

등록 20220511 14:03:09

외국인 기자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감속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별채를 조기에 발행, 조달한 자금을 즉각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량망(新濤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2022년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을 가속해 효과적인 투자확대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자료 : 뉴시스

중국의 양회에서 언급되는 탄소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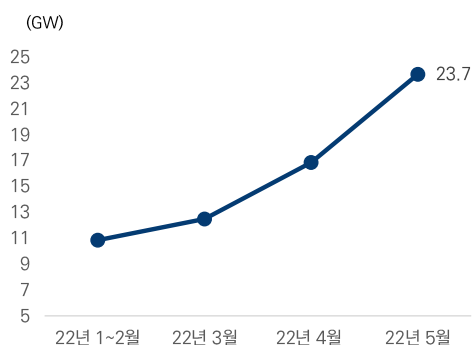
정책	내용
탄소중립 추진	2030 탄소정점도달방안을 이행하고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전환 추진.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리 규제 대상을 에너지 총 소비에서 탄소배출로 변경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및 주요 원자재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며, 전력 수급을 안정화
신에너지차보급 확대	내수 진작 전략의 일환으로 신에너지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인프라 확충	주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증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 추진	정부는 정부업무보고에서 14.5 경제계획서에서 제시한 대규모 풍력 태양광단지 건설 계획 추진을 강조 2022년 2월 2차 명단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자료 : 에너지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대표주자는 태양광과 풍력이다.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태양광과 풍력인데, 먼저 태양광부터 살펴보자.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손 꼽힌다. 다른 인프라 산업과 대비 설치하기 쉽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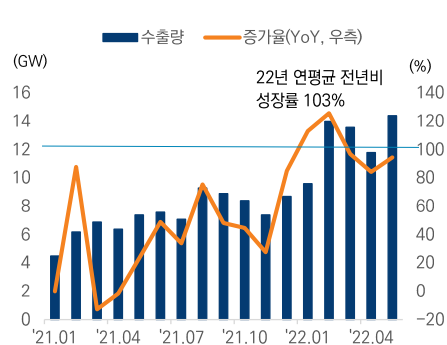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설치하기가 매우 쉽고 빠르다. 지방정부의 지원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보여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월간 누적 설치량



자료 : CPIA, PV Info, 미래에셋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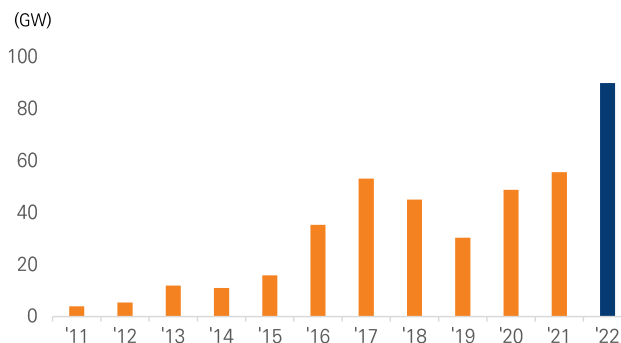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자료 : CPIA, PV Info, 미래에셋자산운용

올해 1~5월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3.7GW로 전년비 139.3% 늘어났다. 5월엔 6.83GW가 늘어났는데, 지방정부의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숫자에 나타나 전년비 141.3%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연간 설치 용량이 100GW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당시 호황을 보였다고 평가받았던 연간 55GW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태양광 패널이 중국에 설치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협회는 올해 보수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신규 설치 수요가 지방정부와 국영 에너지 기업들에 힘입어 최소 75~90GW로 전년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태양광협회는 중국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전년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 : 중국태양광협회(CPIA), 미래에셋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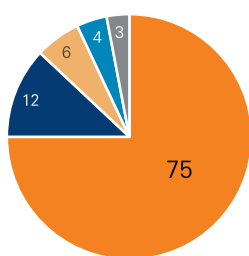
*22 년은 전망치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빛을 비추는 것은 중국 정부 부양책뿐만이 아니다. 앞서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역시 20년 이래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럽이 중국 태양광 모듈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나선 것이다. 2022년 5월, 중국이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중 62%를 유럽이 차지한다. 2021년 중국 수출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46%였던 것을 생각하면 16%가량 늘어난 것이다. 5월까지 유럽이 수입한 중국의 태양광 모듈은 약 33.3GW로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났다. 2021년 유럽은 연간으로 40.9GW 수입했었다. 당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기세다.

그렇다면 유럽은 중국에 얼마나 의지할까? 2020년 연간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은 태양광 패널의 75% 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이제는 수입량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중국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의 환경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유럽향 수출은 독점적인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중국 태양광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중국 태양광에 의존하는 정도는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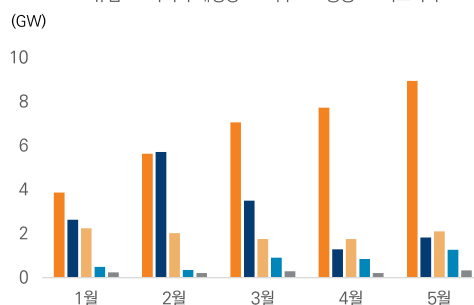
■ 중국 ■ 기타 ■ 말레이시아 ■ 일본 ■ 한국



자료 : Eurostat,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태양광 모듈은 유럽이 싹쓸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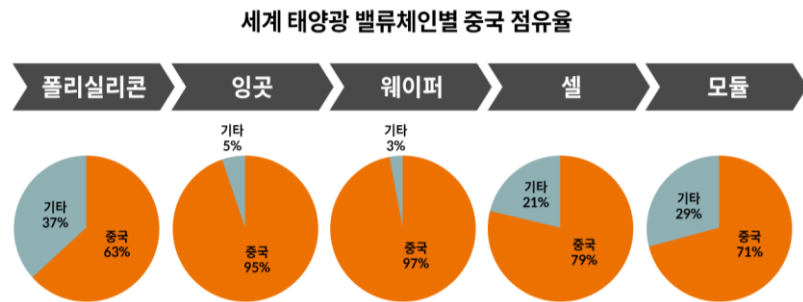
■ 유럽 ■ 아시아 태평양 ■ 미주 ■ 중동 ■ 아프리카



자료 : CPIA, PV Info, 미래에셋자산운용

실제로 중국이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밸류체인 별 중국의 점유율은 낮으면 63%, 높게는 93%에 달한다. 독보적인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태양광 밸류체인 내 중국 점유율



자료 : BR, BNEF, CP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
기준일: 2019년 기준

밸류체인 내 독보적인 위치, 현재 가장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시급한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규모, 유럽의 의존도,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이 모두 겹치면서 기대감을 불지피고 있다.

2)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 풍력

두 번째는 풍력이다. 보통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태양광이지만 사실 중국은 태양광 못지 않게 풍력에서도 남다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풍력 터빈, 장비, 해양 건설 및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 체인이 형성되어 있어 올해 양회에서 태양광과 함께 대형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계획을 언급했다.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

		장점	단점
육상풍력		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	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
해상풍력	고정식	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 조성가능	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
	부유식	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 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	심해에 설치 어려움, 높은 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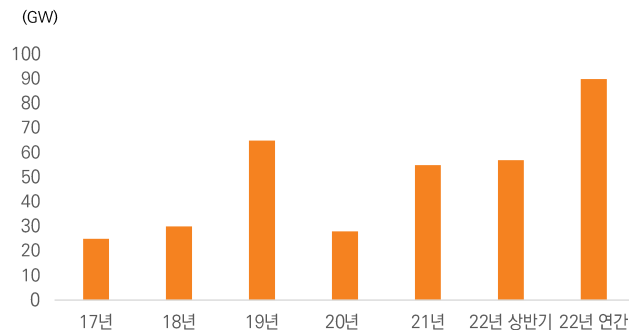
자료 : New Atlas, WPK

풍력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으로 나뉘는데 육상 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트렌드가 이동 중이다. 해상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며 발전 효율이 훨씬 높다. 평균적으로 해상에서 부는 바람의 풍속이 육상에서 부는 바람 풍속보다 빠르고 풍력 밀도가 해상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 발전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한정된 부지 내에서 설치해야하는 육상 풍력에 비해 땅 문제가 없는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중국 내 해상 풍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 내 이목을 끌었다. 중국은 이러한 해상 풍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 해상풍력 설치량은 약 22GW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풍력의 설치량을 2025년 53GW까지 만드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해상풍력 비중이 육상 풍력을 압도 하며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풍력 시장은 미리 공개입찰을 통해 프로젝트 비딩을 하는데, 현재 예상되는 수요만 올해 연간으로 90GW(+58% YoY)다. 올해 상반기 풍력 설치 수요는 57GW로 작년 한해 동안 설치된 양을 이미 6개월 만에 뛰어 넘었다.

중국 풍력 발전 공개 입찰 프로젝트 비딩 결과



자료 : Wind, 신한금융투자

*22년 연가는 전망치

중국은 해상풍력 기술력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상풍력의 기술력은 거친 파도, 열악한 바다의 환경,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이 작동할 수 있게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유럽 풍력협회(Wind Europ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유럽에 설치된 터빈의 평균 정격 용량은 8.2MW였다. 2021년 미국 GE가 12~14MW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다. 이에 맞서 작년 여름 중국의 풍력 업체가 발표한 용량은 16MW였다. 물론 2023년에 프로토타입을 설치하고 2024년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용량은 2만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GE의 터빈이 한번의 회전으로 이틀 동안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알려졌으니, 중국 업체들의 해상풍력은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다.

GE 풍력 터빈 그림



자료 : GE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보다 더 큰 중국 업체의 계획



자료 : 밍양스마트 에너지

글로벌 풍력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기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중국 풍력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상황이다.

3) 중국 2차전지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호조에 힘입어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다. 2차전지 산업 내에서 중국의 위치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차이다.

중국의 6월 2차전지 공급량은 27.0GWh로 전년비 143%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기준 글로벌 Top 10 배터리 메이커를 보면 전년대비 BYD의 약진과 CATL의 점유율 증가가 눈에 들어온다.

글로벌 Top 10 배터리 메이커 점유율 변화에서 중국을 보라

순위	제조사	22년 5월	21년 5월	전년비 비중 변화
1	CATL	33.9%	25.9%	↑
2	BYD	12.5%	7.3%	↑
3	LG 에너지솔루션	12.5%	26.4%	↓
4	파나소닉	9.9%	15.1%	↓
5	SK온	6.6%	5.2%	↓
6	삼성 SDI	5.1%	5.4%	↓
7	CALB	4.7%	3.6%	↑
8	Guoxuan	2.8%	1.9%	↑
9	Sunwoda	1.6%	0.3%	↑
10	EVE Energy	1.5%	1.0%	↑

자료 :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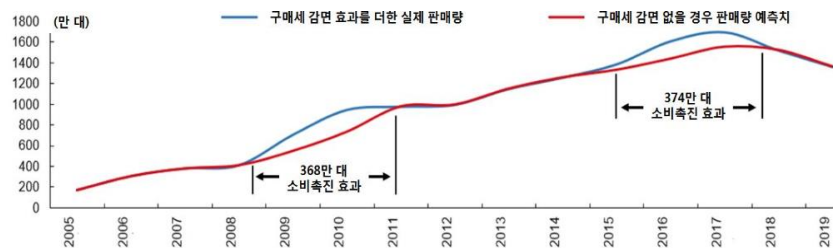
일년 동안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은 56.7%까지 상승하며 엄청난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봉쇄가 해제된 6월과 7월의 수치는 4~5월 대비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중국의 2차전지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차전지 탑재량 증가는 중국 전기차 판매 호조에 기인하는데, 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이 중국 전기차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2차전지 산업까지 부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4) 중국 전기차 완성 업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이 전기차다. 중국은 소비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전체 소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가량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줘 최고 280만원 절감이 된다는 포인트에서 자동차 관련 정책을 통한 중국의 소비 살리기 행보를 볼 수 있다.

과거 두 차례의 구매세 감면에 따른 자동차 소비 진작 효과 분석



자료 : CAAM, 귀신증권경제연구소

위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며 중국은 하반기 내내 자동차 관련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는 중에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계획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볼 방향은 전기차 밖에 없다. 전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전기차 관련 정책도 여러가지 내놓는 중이다. 이구환신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지역별로 다양하다.

중국 전기차 관련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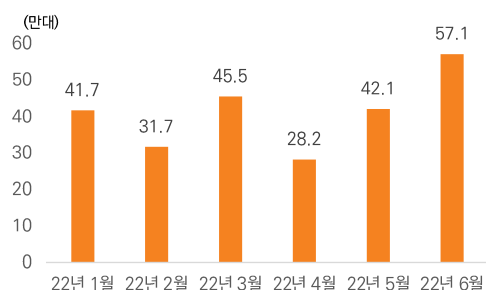
지역	시행시기	내용
상하이	22년 5월 ~ 12월	순수 전기차 대상 1 대당 1 만위안
산둥성	22년 5월 ~ 12월	비공공분야 신에너지차 5 만 400 위안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6 만 4800 위안
광저우시	22년 5월 ~ 12월	신에너지차 번호판 3 만개 추가발급
후베이	22년 6월 ~ 12월	이구환신 8000 위안, 오래된 차를 양도하고 신에너지차를 구입할 경우 5000 위안
선전시	22년 5월 ~ 12월	보조금 1 만 위안
광저우시	22년 1월 ~ 12월	이구환신 4000 위안 상당 쿠폰 지급

자료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에셋자산운용

ZDNe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연말 종료 예정된 전기차 취득세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데, 당초 2018년에서 2020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계속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올해 연말 정책이 만료된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히며 기대감은 살짝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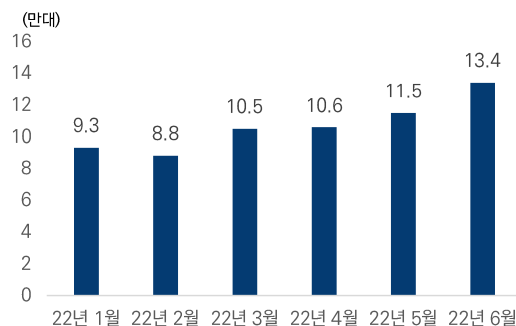
그리고 상하이 봉쇄가 5월 말로 끝나면서 6월,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 공장들의 판매량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6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월비 35.6%, 전년비 141% 늘어났다. 6월 중국 완성차 업체인 BYD는 13.4만대를 생산하며 YoY로 242% 성장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 전차가 판매량이 500만대~700만대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중국 전기차의 호황이라고 불리던 2021년 대비 43%에서 많게는 100%까지 성장하는 수치다.

중국 전기차 월간 판매량 (도매 기준)



자료 : CPCA(중국승용차협회), 미래에셋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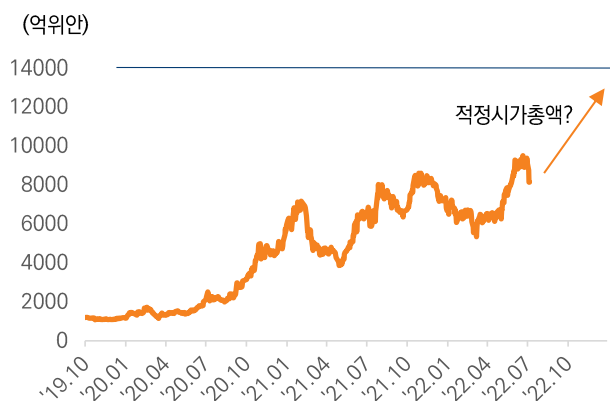
BYD 월간 전기차 판매량



자료 : BYD, 미래에셋자산운용

BYD가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런칭할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신증권은 BYD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제시하며 지금 시가총액 보다 40% 가량 상승한 1.43조 위안이 적정 시가총액이라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는 전문가들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비단 BYD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중국 전기차 완성업체들도 모두 판매량이 올라오면서 공급이 견조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고성장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은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집중되어 있는 형세로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 판매량의 2배가 팔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될 것이다.

중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BYD 가 아직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제시한다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전기차를 이끄는 대장격인 BYD의 성장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의 노력이 만나면서 남아있는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중국의 대표 성장 산업이다.

리스크 관리 및 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 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격과의 괴리 발생 위험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로 인해 ETF의 순자산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TF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은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ETF에 투자하기 전,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는 그러한 투자가 자신의 특정한 투자 요구나 목적 및 재무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문 중 특정 역외 ETF 들은 해당 테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투자추천과는 무관합니다